

# HSBC 한국 제조업 PMI<sup>®</sup>

한국 제조업 생산 증가율 및 신규 주문 감소율, 9개월래 최대치 기록

**요약:**

- 헤드라인 PMI, 2012년 9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
- 생산 가격, 7월 포함 21개월 연속 하락세 기록
- 제조업 고용 감소율, 17개월래 최대치 기록

7월 한국 제조업 경기는 더욱 위축됐다. 응답자들은 국내 경기 둔화 및 불리한 환율을 생산, 신규 주문 및 고용 수준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제조업 동향을 하나의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종합 지수인 HSBC 한국 구매관리자지수 (PMI<sup>®</sup>)는 7월 47.2를 기록, 6월 49.4에서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하락세는 이전 4개월 동안의 상승세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7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생산 하락률은 9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체들은 경기 둔화가 생산량 감소의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생산과 마찬가지로 신규 주문 역시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2012년 10월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특히 건설 및 통신 등 국내 특정 산업의 약세가 신규 주문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답했다.

고용은 2012년 2월이래 최대 감소율을 기록하며 하락했는데, 이는 주문량 감소 및 경기 둔화가 그 원인으로 해석된다.

잔존 수주 역시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9개월래 최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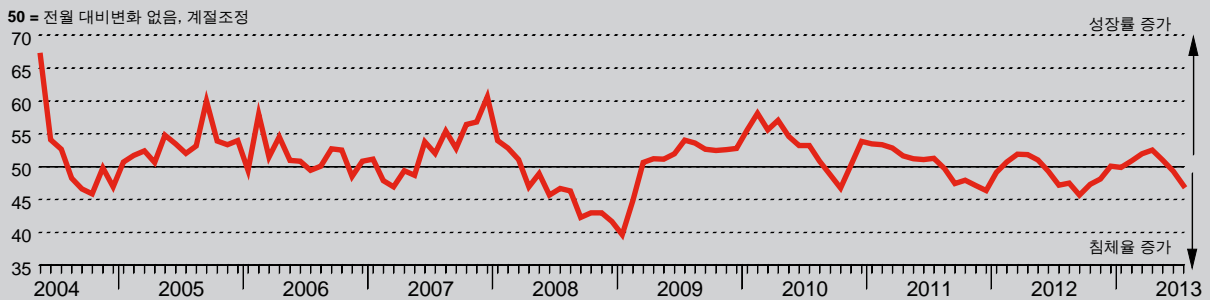
기록했는데, 이 역시 신규 주문량 감소가 주 원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7월 신규 수출 주문 역시 9개월래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등 생산량 감소 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띠었다. 이에 대해 일부 응답자들은 미주 지역과 중국의 수요 감소가 핵심 요인이라고 답했다. 또한 엔저로 인한 일본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심화로 수주에 실패했다는 답변도 다수 있었다.

한편, 생산 가격은 7월에도 하락해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응답자들은 가격 경쟁이 보다 치열해진 것이 지속적인 가격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답했다. 구매 가격 역시 하락해 4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단, 하락률은 생산 가격 하락률 대비 완만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알루미늄과 구리 등 특정 원자재의 가격 하락이 주 원인이다.

주문량 감소로 인해 구매 활동도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7월 감소율은 지난 달 대비 상승했다. 완제품 재고도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감소 흐름을 나타낸 지난 6개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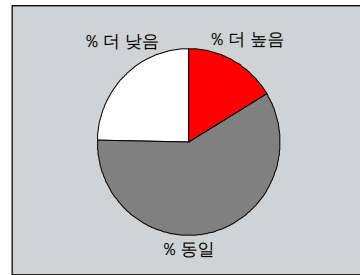
**HSBC 한국 구매관리자지수 (PMI<sup>®</sup>)**



HSBC 한국 PMI<sup>®</sup>는 제조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도록 설계된 종합 지표로서 경제 전체에 대한 선행지수 기능을 한다. 이 지수는 생산, 신규주문, 고용, 공급업체 배송시간 및 구매 상품 재고의 변화를 측정하는 개별 지수를 기초로 한다. PMI 수치가 50.0 미만이면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50.0 초과이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50.0은 변화가 없음을 뜻하며, 50.0과의 편차가 클수록 지수가 나타내는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Purchasing Managers' Index<sup>™</sup>와 PMI<sup>®</sup>은 Markit Economics Limited의 등록 상표이며, HSBC는 위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며, Markit과 Markit 로고는 Markit Group Limited의 등록 상표이다.

**생산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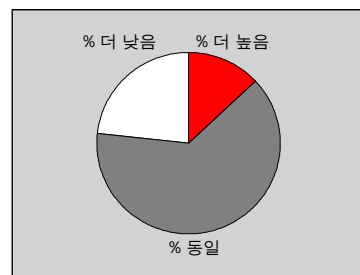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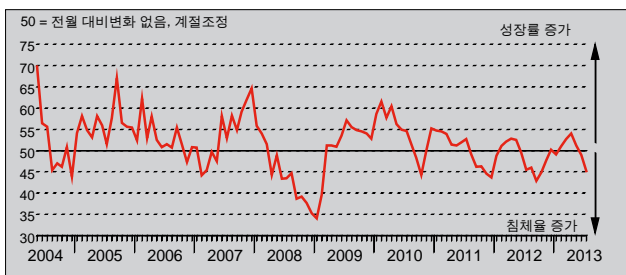
Q. 이번 달 제조/생산을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7월 한국 제조업 생산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소율은 6월 이후 상승해, 9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더불어 통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등 소비가 다소 부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규 주문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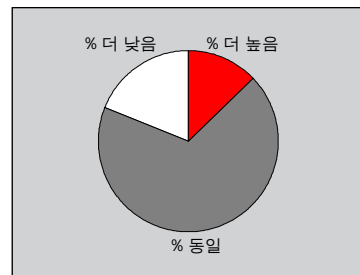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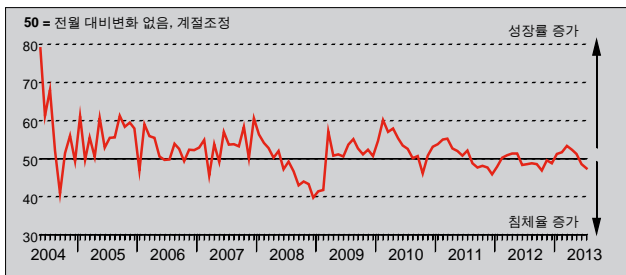
Q. 이번 달 신규 주문 수준 (내수 및 수출)을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생산 수준과 마찬가지로 7월 한국 제조업 신규 주문은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큰 폭으로 상승해 2012년 10월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내수 경기 둔화가 신규 주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으며, IT 업계를 비롯한 특정 부문 경기 둔화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신규 수출 주문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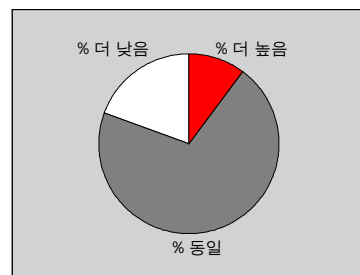
Q. 이번 달 신규 수출 주문 수준을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7월에도 신규 수출 주문은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제조업체들은 해외 시장 수요 둔화가 일정 정도 엔저 현상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다수의 응답자들은 엔저 영향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일본 기업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밀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미주 지역 주문량 감소가 신규 수출 주문 감소의 핵심 요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잔존수주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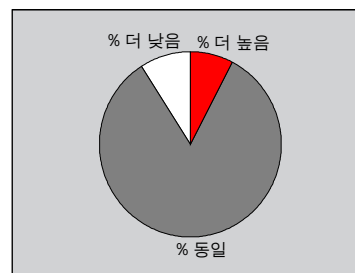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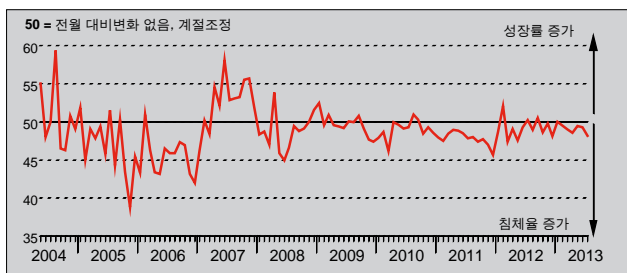
Q. 이번 달 잔존 수주량 수준을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제조업 7월 잔존 수주는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경미하게 증가했다. 생산 및 신규 주문과 마찬가지로, 잔존 수주 감소율은 2012년 10월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주문량 감소를 잔존 수주 감소의 주 원인으로 꼽았으며, 다수의 응답자들은 구체적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잔존 수주 감소의 추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완제품 재고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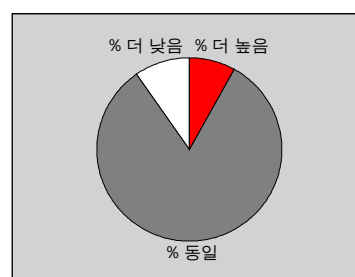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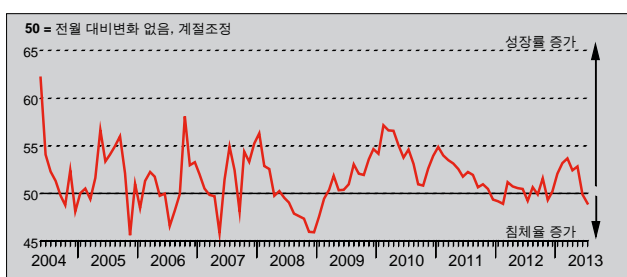
Q. 이번 달 완제품 재고 (단위)를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7월 완제품 재고는 6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으며 감소율은 감소세를 나타낸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수출 주문량 감소 및 국내 경기 둔화가 감소의 주 원인이라고 답했다.

## 고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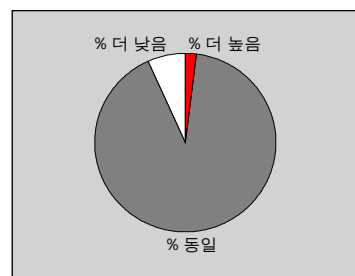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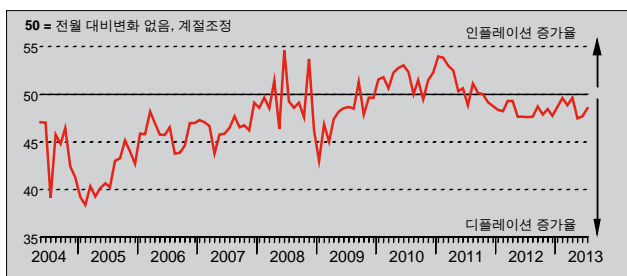
Q. 이번 달 부서 내 고용 수준을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조업 부문의 7월 고용 감소율은 17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한국 제조업 고용은 2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으며, 고용 지수는 본 조사의 사상 평균치를 하회했다. 이는 주문량 감소 및 내부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생산 가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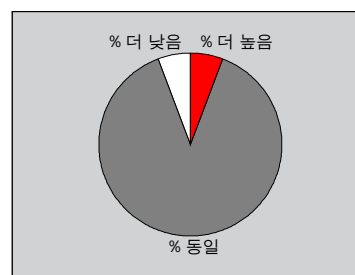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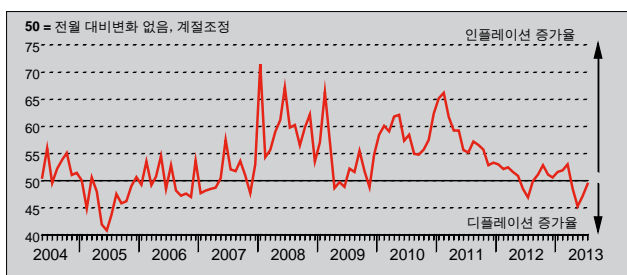
Q. 이번 달 생산 단위 당 평균 산정 가격 (생산량 가중치 적용)을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7월에도 생산 가격이 하락해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단, 하락률은 4월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한국 제조업 내 경쟁 심화로 생산 가격을 인하했다고 답했다. 약 7%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가격을 인하했다고 답했으며, 2%가 가격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 구매 가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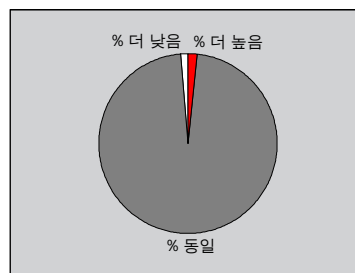
Q. 이번 달 평균 구매가 (구매량 가중치 적용)를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7월에도 구매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하락률은 하락 흐름을 보인 최근 4개월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구매 가격 지수는 본 조사의 사상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구매 비용이 감소했다고 답한 6%의 응답자들은 알루미늄과 구리 제품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구매 비용이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 공급업체 배송시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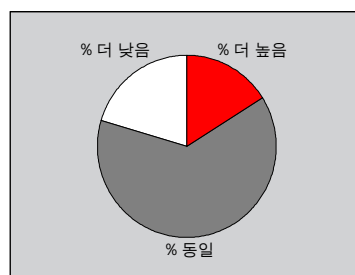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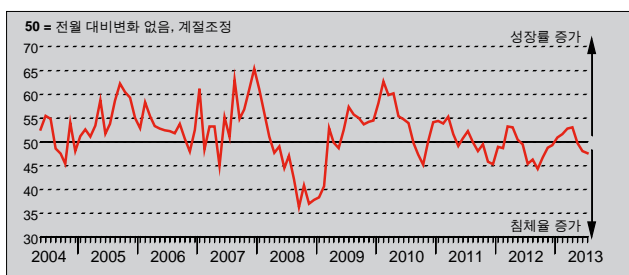
Q. 이번 달 공급업체의 배송 시간(가중치 적용)을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제조업 7월 공급업체 배송 시간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최근 몇 년간 나타난 동향과 흐름을 같이 했다. 7월 배송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선적 지연과 공급망 문제가 원인이라고 답했으며, 배송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구매 수요 감소로 배송 시간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 구매 수량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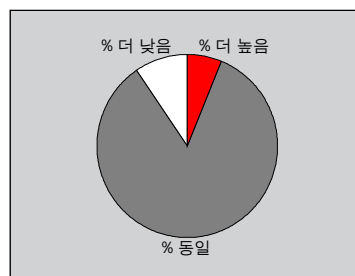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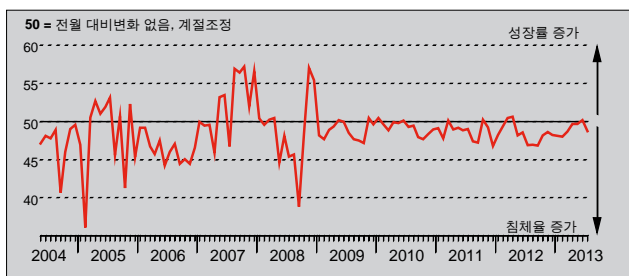
Q. 이번 달 구매 품목 수량(단위)을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7월 구매 활동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감소율은 상승했다. 구매 수량 지수는 본 조사의 사상 평균치를 하회하며 9개월래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는 주문량 약세가 구매 활동 하락세로 이어졌고, 특정 제품의 구매 가격이 상승해 제조업체들이 재고 수준을 최소화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구매 재고 지수

Q. 이번 달 구매 재고(단위)를 지난 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구매 재고는 6월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후, 7월에는 다시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주문량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답했으나, 일부는 재고 관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재고를 줄였다고 답했다.

## 데이터 및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관한 정보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매월 업계 내 400개 이상 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에게 보내는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집계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설문 참가자는 한국 GDP 대한 산업적 기여도를 고려하되, 지리적 위치 및 표준산업분류(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그룹에 따라 선정된다. 설문 조사 응답에는 매월 중순에 집계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지난 달과 비교한 이번 달의 변화(있는 경우)가 반영되어 있다. 각 지표에 대해 이 '보고서'에는 각 응답의 백분율, 증가/개선 응답 수와 감소/악화 응답 수의 차이 및 개별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수는 긍정적인 응답률의 합계와 '동일'한 응답률의 반을 더한 값이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가지 개별 지수에 가중치를 두어 산정한 종합 지수다. 가중치 내역은 신규 주문 (0.3), 생산 (0.25), 고용 (0.2), 공급업체의 배송시간 (0.15), 구매 품목 재고 (0.1)이며, 공급업체 배송시간 지수는 거꾸로 전환되어 다른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개별지수는 선행지수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지수 수치가 50.0을 초과하면 해당 변수의 전반적인 증가를, 50.0 미만이면 전반적인 감소를 나타낸다. Markit은 보고서 첫 발행 이후 근원 조사 데이터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 단, 계절 조정 요인이 계절 조정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절 조정 지수는 적절하게 수정될 수 있다.

2009년 5월 이전에 집계된 데이터는 전자분야 기업의 설문조사 응답에 국한되어 있다.

## 경고

여기서 제공되는 HSBC 한국 제조업 PMI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Markit Economics Limited에 있다. Markit의 사전 동의 없이 이 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무단 복제, 배포, 전달 등을 포함한 모든 불법 사용을 금지한다. Markit은 여기에 포함된 콘텐츠 또는 정보("데이터")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없으며 이 데이터의 오류, 부정확성, 누락 또는 지연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없다. Markit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특수한, 부수적인 또는 결과적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Purchasing Managers' Index™ 와 PMI® 은 Markit Economics Limited의 등록 상표이며, HSBC는 위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며, Markit과 Markit 로고는 Markit Group Limited의 등록 상표이다.